

<서평>

『새로운 성경해석: 한국적 해석 서론』

정중호 저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10, 275쪽

박영복¹⁾

정중호 교수는 이 책을 통하여 총 5부에 걸쳐서 한국적 해석학이라는 새로운 성경 해석을 모색한다. 성경이 청중이나 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청중이나 독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자 하며, 각 신앙인이나 각 신앙공동체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독특하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저자는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은 어떤 한 가지의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양한 방법들이 함께 적절히 사용되면서 조화를 이룰 때에 본문의 의미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하였다. 저자가 이 책에서 모색하는 새로운 성경 해석의 시도는 한국인의 정서에 충분하지 못한 서구적인 성경 해석학적 방법을 탈피하여 보다 한국적인 해석학적 공동체에 걸맞은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책은 총 5부로 나뉘어져 있지만, 내용상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제1부는 서론에 해당하며 성경 해석의 역사와 한국적 성경 해석을 위한 한국의 성경 및 경전 해석의 역사적 분석이 소개되고 있다.

1) 백석대학교신학대학원 강사, 구약학

본문에서는 제2부에서 제5부까지 여러 가지 성경해석 방법론들이 소개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짧게 결론이 덧붙여 있다. 그러나 서평자가 읽기에는, 제2부에서 제4부까지는 기존의 성경 해석의 주된 흐름에 해당하는, 성경의 저자중심 해석, 본문중심 해석 그리고 독자중심 해석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는 둘째부분이 있고, 제5부와 결론을 한꺼번에 묶어서 새로운 성경 해석을 위한 방법론적 탐색(제5부)과 이를 위한 결론적 제안(결론)이 마지막 셋째부분을 형성한다고 생각된다. 저자의 서술방식은 성경 해석의 역사적 고찰과 방법론적 실재를 분석함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새로운 방법론을 위한 선형적인 시행착오를 독자들에게 성실히 안내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중요하게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론 중에 하나는 '감성적 해석'(Emotional Interpretation)인데, 여기서 성경 해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기 보다는 종합적인 성경 해석의 보완적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자가 주장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의 방법들을 본문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자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분에서 자신의 성경 해석학의 관점을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화시키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필요한 도구로서 우리는 여러 해석 방법론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해석방법이 모든 어려운 점들을 풀어주는 만능 해결사는 결코 아니다. 이제까지 풀지 못했던 한부분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방법을 도외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서평자가 판단하기에, 저자는 성경 해석의 중심이 설교자 혹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욕구를 중요하게 여기며, 방법론적으로는 독자가 내재된 저자와 소통이 가능한 '독자 반응 비평'의 입장에서 서 있다.

'제1부 성경 해석사와 한국적 해석을 위한 서론'에서 그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첫째는 성경 해석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성경 해석 방법론을 평가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적 성경 해석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여러 경전들과 시대적 특수한 상황에 따른 한국의 성경 해석자들을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저자는 한국의 다양한 종교들의 경전해석 방법론들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한국적 성경 해석을 위한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과 사유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현대 한국인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의 기초 자료들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성경해석이 공리공론에 머무르지 않고 해석의 결과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든지, 전통적으로 여러 종교들의 다경전적 상황(multi-scriptural context)에서 한국인의 해석학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성경 해석의 중심축에 한국의 종교적 전통을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저자는 한국인의 독특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이러한 한국의 종교적 전통에 중심축을 견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한국적 해석을 위한 서론'이 실제적인 방법론에 적용이 되어 결론부분에서 총체적인 모습으로 제안되었다면 저자의 해석학적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적 해석을 위한 논의는 이 서론적인 언급에서 머물고 만다.

‘제2부 저자 중심 해석(역사비평학)’에서 성경의 각각의 책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상황과 목적에 의해 기록되었는가에 집중했던 역사비평학을 개관하고 있다. 본론 부분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 해석학적 방법론을 언급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역사비평학적 방법론을 설명할 때 독자가 참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 역사적인 발단에서부터 발전, 실제 그리고 방법론적인 공헌과 그 한계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나열하고 있어서, 성경 해석의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하는 독자들의 요구를 잘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하나씩 성경 해석 방법론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머리 속에서 정리되는

느낌을 받게 하며, 각 방법론들의 장단점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역사비평학에 관한 저자의 입장은, 성경 분해적이고 과거지향적이며 신학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발견되는 모순, 충돌 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도구로서 자신의 종합적인 성경 해석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별히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제3부 본문 중심의 공시적 해석방법’에서는 수사학적 비평(Rhetorical Criticism), 경전비평(Canonical Criticism), 이야기 비평(Narrative Criticism)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주의 비평(Structuralist Criticism)을 다루고 있다. 과거지향적인 역사비평학의 반동으로서 본문 중심의 공시적 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본문 중심의 성경 해석에서 몇 가지 장점을 취합하는 듯하다. 첫째, 수사비평이 설교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 해석방법들과 공유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을 한다고 판단한다. 둘째, 최종 형태의 본문에 관심을 갖는 경전비평을 통하여 역사비평학이 소홀히 했던 신앙공동체의 삶과의 연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저자는 이야기 비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데, 여러 시대에 전승된 이야기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야기를 듣거나 읽는 과정에서 쉽게 일반인들도 비평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본문 중심적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의미를 독자 중심의 해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는다. 이렇듯 독자들에게 방법론들의 공헌과 한계들을 개관하면서 저자 자신의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모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제4부 독자 중심 해석’에서는 독자를 성경 해석에 적극적으로 끌어 들여 해석활동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이 때 본문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독자들과 함께 살아 숨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은 이러한 저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잘 반영한다.

성경을 읽는 독자는 본문과 대화하면서 본문을 자신의 말로 자신의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 할 수 있을 때 본문의 의미는 자유를 회복하고 살아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이해 하자는 자세도 이러한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성경읽기를 통해서 어떻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우선 본문에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본문과 새 시대의 독자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새 시대의 독자가 자신의 말로서 본문의 의미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독자와 함께 계속 살아 숨 쉬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의 입장은 마치 생명력 있는 성경 해석은 독자들의 삶 속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성경 해석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 저자는 피쉬(S. Fish)의 해석공동체 개념을 이용하여 그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불안과 혼돈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석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서평자가 판단하기에, 이런 해석공동체의 역할 부분에서 저자가 한국적 신앙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할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저자가 직접적으로 이 개념을 제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1부에서 “한국에는 해석공동체의 특성을 중시하는 경전해석의 전통이 있다”라고 이미 언급한 내용과 결론의 7) 독자 중심 해석에서 “한국 이라면 한국의 전통과 한국의 상황 속에서 본문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를 충분히 표명하고 또 그 여지를 남겨둔다고 하겠다.

‘제5부 새로운 해석’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해석 방법들과 어느 범주에도 들어가기 힘든 해석 방법들을 설명함으로써, 저자가 이 책에서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종합적인 성경 해석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집단의 사상들의 반응을 고려한 이데올로기 비평(Ideological Criticism), 현대 독자들과의 시간, 거리, 문화 등의 한계를 건너뛰어 당시의 상황에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상황 안으로 걸어들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과학적 비평(Social-Scientific Criticism), 본문의 불완전성을 발견하고 폭로하여 독자가 비확정적인 본문과 관련을 맺으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해체주의 비평(Deconstructive Criticism)까지, 좀 더 극단적인 방법론들도 저자는 해석학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저자의 의중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방법론에 힘이 실려 있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의식적 비평(Ritual Criticism)과 감성적 해석(Emotional Interpretation)이 그것인데, 이것은 독자와 성경본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함으로써 목회현장과 성경 해석과의 거리를 좁혀 보려는 저자의 의도로 이해된다. 의식적 비평은 의식이 거룩하고 비판할 수 없다는 종교적인 통념을 깨보려는 시도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감성적 해석은 감각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성경의 메시지를 명료하게 돌출시켜 더욱 생생한 감동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자를 통하여 이 두 가지 성경 해석은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다루고 평가했던 성경 해석의 방법론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성경의 특정한 본문을 해석할 때에 다음과 같은 해석의 순서를 제안한다.

기도 혹은 마음 가다듬기 → 해석 단위 결정 → 본문을 여러 번 정독 → 구조 분석
→ 본문 분석 → 본문 배경 연구 → 독자 중심 해석 → 종합적 해석

이러한 제안 가운데에 몇 가지 특이한 사항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번 정독한다는 것은 한글성경만 여러 번 정독한다는 뜻이 아니다. 영어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70인역까지 독자가 능력이 되는 한 여러 사본과 역본을 반복해서 읽는 것을 저자는 의미한다. 둘째, 구조 분석 단계에서 양식비평, 구조주의 비평, 이야기 비평, 수사비평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본문의 양식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방법론적 차이에서 도출되는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충고는 결여되어 있다. 서평자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우선순위라든가,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평가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구조 분석과 마찬가지로 본문 분석에서도 수사비평, 경전비평, 이야기 비평, 구조주의 비평 등의 방법론들을 사용할 것을 이 단계에서 추천하고 있다. 본문의 분석은 본문 중심의 공시적 방법이 유용함을 언급한 것인데, 성경 해석자들의 가능성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함이 아쉽다. 넷째, 본문 배경 연구에서는 역사비평학적인 방법론들을 적용하도록 요청한다.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독자 중심 해석을 본문 분석과 배경 연구 후에 이루어지는 해석학적 단계로 판단한다. 이 단계에서 한국의 전통과 한국적 상황 속에서 본문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여섯째, 종합적인 해석 단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방법론들이 그 간격을 메워주며 해석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적용할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런 통합적인 성경 해석 방법론의 적용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될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사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해석의 열매라고 글을 맺고 있다.

저자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새로운 성경해석: 한국적 해석 서론』을 읽고 나서, 서평자는 이 책의 긍정적인 기여를 뒤로 미룬 채, 먼저 해석학적 입장의 차이에 따른 아쉬운 점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 성경 해석이 저자가 일률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각태일적인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서평자가 이해하기에 이 질문은 저자의 해석학적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저자의 해석학적 입장은 모든 해석학 방법론은 장단점을 잘 고려하면 어떤 것이든지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도 차용되며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더욱이 결론 부분에서 제안된 해석학적 순서가 이를 입증하듯, 각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학적 방법론들이 사용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저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의 다양한 측면을 상호 보완적인 해석학적 방법으로 읽어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만약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어떤 특정한 장르, 어떤 특정한 본문에서 해석학적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서평자가 염려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각기 다른 해석학적 방법들이 특정한 본문에 대해서 달리 말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본문에 대한 똑같은 공식적인 해석학적 방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해석자에 따라 본문의 경계와 구조가 달라지고, 수사학적 절정과 플롯이 달라지며, 이데올로기나 사회 과학적 배경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종합적인 해석에서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고자 할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만약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어떤 방향으로 향하든지 혹은 어떤 상황에 따라 그 본문의 의미를 다르게 드러낼 수 있다고 허용한다면, 역사비평학 이전의 과도한 풍요적 혹은 알레고리 해석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독자 반응비평에서조차도 해석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닌가 묻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종합적인 성경 해석 방법

론에는 적어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둘째, 저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성경 해석 방법론이 신앙공동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저자는 책의 여러 곳에서 성경 해석학의 목회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목회 현장과의 깊은 괴리현상을 인식하고 성경 독자들이 성경 해석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이야기 비평, 독자 반응 비평, 의식적 비평, 감성적 해석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적 성경 해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일차적으로 성경 해석학이 한국적인 신앙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하지만, 서평자의 좁은 소견으로, 성경 해석의 비전문가인 신앙공동체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성경 해석의 여러 방법론들을 얼마나 수용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의 새로운 성경해석으로서 한국적 성경 해석은 신앙 공동체에게 문을 너무 활짝 열어 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좀 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안한다.

이러한 해석학적 입장에 따른 아쉬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성경을 해석하고자 함에 있어 우리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 성경 해석학의 역사와 그 흐름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드러난 다양한 성경 해석 방법론들을 접근하기 쉽도록 저자 중심 방법, 본문 중심 방법, 독자 중심 방법 그리고 새로운 방법 등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각 방법론에서는 태동과 발전, 공헌과 한계점들을 서술하면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고, 그 해석 방법론에 입각한 실제의 본문 적용을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충실한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들고 싶다. 이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의 공헌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저자에게 큰 빛을 진 것이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역사적으로 쌓아 온 성경 해석학적 노력이 무엇이며, 또 이를 통하여 나아가야 할 바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

할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저자에게 머리 숙여 감사해야 한다. 글을 마감하면서, 서평자는 저자의 증보된 새로운 한국적 해석 방법론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저자가 기대하는 것처럼,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고 한국적 신앙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성경 해석 방법론이 제안되어서, 한국 신학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저작이 탄생하길 기대하는 것이다.